

한일전 · 국제대회 연속 우승 농구부 김현국 감독의 '5월 전성기'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지난 17일, 우리학교 농구부 김현국 감독이 '제48회 이상백배한일대학농구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우리학교 농구부가 '2025 Sias 국제 농구 토너먼트' 대회에 초청돼 우승을 거머쥐었다. 대학선수 대표팀과 우리학교 농구부를 이끌고 5월에만 우승을 두 번 차지한 김 감독의 우승기를 들어봤다.

'이상백배한일대학농구대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학농구 선수

들이 남녀부로 나뉘어 3관 2선승제로 맞붙는 교류전이다. 양국 농구에 영향을 끼쳤던 독립유공자 이상백 씨를 기리는 대회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1차전 77-63, 2차전 80-72로 승리해 우승을 확정했다. 김 감독은 "한일전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대회였는데 우승을 차지해 기쁘고, 각 대학의 선수들이 열심히 따라줘서 가능했다"는 우승 소감을 남겼다.

대학에서 뛰던 선수들을 짝은 기간 내에 한 팀으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김 감독은 "내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했다"며 "수비 훈련에 집중했고,

단기간에 패턴 공격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격은 선수들에게 많이 맡겼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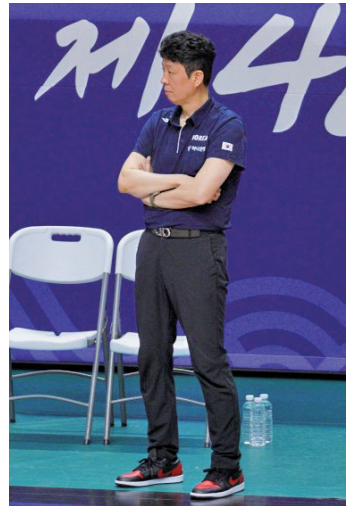
국내 대학 최고의 선수들을 지도하고 돌아온 김 감독은 "우리학교 선수들도 앞으로 이런 대회에 참석해서 농구를 보는 시야를 넓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학교 주장 이상현(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도 차출됐다. 김 감독은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다"며 "이번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U-리그에서도 기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오는 7월, 독일 라인-루르에서 열리는 하계 세계대학경기대

회도 감독을 맡게 됐다. "조별리그 상대가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레바논이라서 쉽지 않겠지만 2승을 따서 상위 그룹 대회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학 대회지만 세계 농구를 배우면서 성적까지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우리학교 에이스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됐다. 김 감독은 "배 선수의 슈팅력이 세계대회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백배 농구대회가 끝나자마자 김 감독은 우리학교 농구부를 이끌고 중국 Sias대학의 초청을 받아 중국으로 떠났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헝가리 등 여러 국가의 프로팀과 대학팀이 함께 대회를 치렀고, 6경기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



지난 17일, 우리학교 농구부 김현국 감독이 우리나라 대학 대표팀을 이끌고 '제48회 이상백배한일대학농구대회'를 우승했다.

(사진제공=경희대 농구부 프린트 KBF)

전에서는 말레이시아 리그의 디펜딩 챔피언을 만났지만 10점 차 이상으로 승리했다.

우리학교는 오는 29일 명지대와 U-리그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김 감독은 "두 대회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명지대전부터 다시 우리학교 농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당신이 일과 삶에 몰입하고 성장하도록 함께합니다

Hansol

한솔홀딩스 | 한솔제지 | 한솔에코패키징 | 한솔페이퍼텍 | 한솔PNS | 한솔코에버
한솔테크닉스 | 한솔아이원스 | 한솔로지스틱스 | 한솔로지스유 | 한솔TCS
한솔홈데코 | 한솔인티큐브 | 스티커스 | 한솔케미칼 | 테이팩스 | 한솔문화재단



배구부 남은 2경기 PO 진출 경우의 수는?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 배구부가 정규리그 종료까지 2경기를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도 다른 학교 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배구부는 4경기에서 승점 5점을 획득하며 현재 남자부 A조 7팀 중 4위다. 일차 목표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면 최소 3위로 마쳐야 하며, 현재 3위 중부대와의 승점 차는 2점이다.

남은 두 경기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경일대와의 홈경기, 13일 경상국립대와의 원정경기다. 경일대는 6위, 경상국립대는 7위로 비교적 약체다. 하지만 지난 14일 성균관대전 패배로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도 자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는 없다. 남은 경기에서 모두 4세트 안에 승리해 승점 6점을 쌓고, 다른 대학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관건은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3위 중부대와 2위 성균관대의 경기다. 성균관대는 승점 12점으로 2위, 중부대는 승점 7점으로 3위에 올라있다. 성균관대가 중부대를 잡고, 우리학교

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긴다면 3위로 올라서게 된다.

성균관대가 5세트 전에 중부대를 꺾으면 우리학교가 중부대의 승점을 역전할 수 있다. 성균관대가 5세트 끝에 중부대에 승리하면 중부대와 우리학교의 승점이 같아지지만, 우리학교의 승수가 더 많아 3위가 된다. 배구 U-리그는 승점이 같을 시, 승수-점수 득실률-세트 득실률-승자승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전제는 우리학교가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땀을 때다.

이행 감독은 "남은 2경기에서 승점 6점을 따오는 게 급선무"라며 "하위권 팀들이지만 방심하지 않고 5세트 전에 이기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플레이오프를 치른지 10년이 더 지난 것 같은데, 올해는 올라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이번 시즌 큰 걸림돌이 됐던 부상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 이 감독은 "4학년 마윤서(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이제는 경기에 나설 수 있을 정도가 됐고, 정송윤(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도 부상이 모두 나아졌다"고 전했다.